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Is there 'the' Christian Economics?

한동근

- I. 서론
- II. 기독교 입장에서 본 현대 경제학
 1. 현대 경제학의 특징
 2. 신고전파 경제학의 윤리적 기초와 그 비판
 3.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적 기초와 그 비판
- III. 신고전파 세계 안에서 기독교 경제학을 하자는 견해
- IV. 해이의 기독교 경제학 틀
- V. 세속사회를 위한 성경적 사회원칙의 도출에 반대하는 견해
- VI. 기독교 경제학 방법에 대한 기타 견해들
- VII. 결론

Abstract

Some economists who believe in Jesus as their Savior have tried to integrate their fields, economics, with the belief. We define 'christian economics' as the area where the conscious and explicit attempts are being made.

This paper reviews various views about how the christian economics can be done taken by some leading christian economists. Some views are radical: they suggest that christian economists should abandon the neoclassical framework and build a totally brand new economics. Others are moderate: they propose that the neoclassical framework be used with some modifications. Many are between the two extremes.

I. 서론

어떤 학자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학문활동과 신앙을 연결시키고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역사에 비해 '기독교적인'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못했던 것은 물질세계를 다루는 경제학과 영적인 문제로서의 신앙은 별개라는 생각과, 신앙을 가치판단의 범주에 두고 그 가치판단을 과학적 방법과 분리하여 '사실'(fact)만을 다룬다는 근대 경제학의 경향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경제학의 대상인 물질과 영적 문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진리에 '객관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도달하게 해 주리라 기대했던 소위 '과학적 방법'에 대한 과학철학에서의 회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신앙과 학문을 접합하고자 하는 노력, 즉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논의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 글은 기독교 경제학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필자의 지식으로는 아직 아무도 기독교 경제학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없다. 사실,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정의를 내리기에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더구나 기독교 경제학 안에서 연구되어질 ‘틀’(frame)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또한 그 중의 어떤 것도 다른 틀들을 굴복시킬 만큼의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독교 경제학은 노동경제학, 국제경제학, 농업경제학 등과 같이 기존의 신고전파와 파라다임 속에서 특정 분야에 관련된 주류 경제학의 한 하위분야(sub-field)를 꼭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신고전파와 파라다임을 대체하는 기독교 경제학의 독자적 틀을 수립하자고 주창하는 극단적 개혁론에서부터, 신고전파와 파라다임 안에서 신앙과 관련된 현상만을 연구하고자 하는(이는 주로 종교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의 연구방법이다) 또 다른 극단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독교 경제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경제학이란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기독교 경제학자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실현하고자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러한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제학과 신앙의 통합방법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 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기독교 경제학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라는 주제로 1994년 1월 미국 고든대학(Gorden college)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헤이(Donald Hey)의 저서인 ‘오늘의 경제학 - 기독교적 비판」(*Economics Today - A Christian critique*)을 중심으로 현재의 기독교 경제학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 경제학(신고전파 경제학)의 특징을 요약하고, 기독교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을 소개한다. III절 이후부터는 II절의 비판에 기초하여,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적인 경제학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견해들을 소개할 것이다.

II. 기독교 입장에서 본 현대 경제학

이 절에서는 현대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특징과 기독교 입장에서 본 현대 경제학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특징은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기술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독교 정신과 비교될 수 있는 특징만 간략하게 다룬다.

1. 현대 경제학의 특징

첫째, 리차드슨(Richardson)의 비유를 따르자면, 인간의 필요에 충당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점점 희소해지는데,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한없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경제학은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희소한 자원과 무한한 욕망의 대립관계 때문에 인간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s)라는 유감스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는 다른 재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희소성 아래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과학'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어진 욕구 아래에서 어떤 의사결정 법칙은 자원을 '경제적으로'(economically) 이용하게 하고, 또 다른 의사결정 법칙은 자원을 '낭비적으로'(wastefully) 이용하게 한다. 앞의 것을 효율적 법칙이라 하고 이 법칙에 따른 인간행위를 합리적이라 부른다. 뒤의 법칙은 비효율적이라 규정되고 그 법칙에 따른 행위는 비합리적이라 부른다. 그래서 효율성과 합리성은 희소한 자원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청지기 원리(principle of stewardship)와 조화한다.

둘째, 경제학은 의심할 나위없이 사회과학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제학은 사회과학들 중에서 '가장 덜 사회적'이다. 만약 아담이 홀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그는 역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처럼 '가장 덜 사회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특징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보다는 공동체(commun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학문이다. 여기서 과학적이라 함은 공리에서 출발하여 연역을 통하여 가설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예측하며, 관찰과 측정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제학의 '과학화'에 열성을 보인 현대 경제학자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학화'는 기독교적 정신이 현대 경제학에 스며드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기독교 정신의 개입을 가치판단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고, 이것은 과학화의 과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수학적'이다. 예를 들면, 공리주의에 기초한 '극대화'(maximization) 계산에 미분이 이용되고, 시장의 일반균형 분석에는 선형대수와 위상수학이 이용되며, 동태 분석에는 미분 방정식이, 불확실성의 분석에는 확률론이 이용된다. 이러한 수학적 개념들이 시사경제에만 익숙한 사람들을 경제학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통한 선교예의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된 것들이 현대 경제학의 모든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 더 많은, 또한 상이한 특징들이 제언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특징들 외에 특히 현대 경제학의 두 가지 특징에 관심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또한 기독교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다. 아래에서는 기독교적 비판이 되고 있는 그 두 가지 특징들 - 현대 경제학의 윤리적 기초와 방법론 - 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신고전파 경제학의 윤리적 기초와 그 비판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소비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개인적인 행복감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신고전파 후생경제학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윤리를 채택하고 있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선이란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단순한 형태에서는 개인의 만족이란 쾌락의 추구를 말하고, 좀더 고상한 형태로는 '더 높은 가치'의 추구이며 이것도 개인의 만족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의 만족이 어떻게 표현되든, 공리주의에서의 선의 초점은 개인 자신이 된다. 반면 기독교적 선의 개념은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한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한 공리주의는 경제정책의 기초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기독교적 판단이다.

신고전파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후생에서 공동체 정신이라는 요소도 결여하고 있다.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 가치들의 합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공동체를 개인들의 합 이상으로 본다.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독교적 윤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공동체 윤리이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의 결여와 함께 개인적 행복감을 선의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는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로 보는 분배문제(distribution) 보다는 배분문제(allocation)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성경의 원칙은 소비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성장을 사회목표로 두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반면 현대 경제학은 소비행위로부터 나오는 만족감을 선으로 여기는 공리주의에 입각해 있으므로 경제성장을 당연한 목표로 받아들인다. '경제성장이란 좋은 것'이라는 관념은 '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물질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성경과

배치되며 경제성장의 부정적 영향 - 공해, 혼잡, 자원고갈, 생활의 단절 등 - 은 청지기 정신과 위배된다. 물론 헤이(Hay)가 지적한 것처럼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고용의 달성과 국민의 기본 욕구(basic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성장은 성경의 원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에 입각한 신고전파의 인간관은 청지기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기독교적 비판의 하나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모든 인간은 도덕적이고 종교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전학파의 인간모델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센(A. K. Sen)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헌신감(commitment)을 남을 생각하는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 대한 예로 제시했다. 센에 의하면 헌신은 나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지만(종종 오히려 감소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공공재의 공급이론에서 종종 지적되고 있는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는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헌신감으로 상쇄된다. 즉 비록 나의 혜택은 작지만 사회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나의 몫(혹은 그 이상)을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소말리아를 위한 식량모금에 참여하는 것, 개인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동작업에도 단체정신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 '합리적 비투표가설'에 반한 투표행위 등이 헌신감의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신고전학파의 공리주의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또한 비판받고 있다.

3.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방법론적 기초와 그 비판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실증적 문제와, 현상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규범적 문제를 구별하려 한다. 즉 실증경제학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며 규범경제학에만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주제의 선택, 이용할 자료의 선택, 경험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선택, 그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검증방법의 선택 등에는 연구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이 개입되게 된다. 그런데 신고전과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가치판단 -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묵시적으로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 은 종종 성경의 원칙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priorities)에 상반된다. 후천적 면역결핍증(AIDS)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중독자들에게 무료 주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따위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한 연구주제의 선택에는 '효율성'의 추구가 그 어느 것보다 - 예를 들어, 마약중독자를 제도하는 것보다 - 우위에 있는 가치라는 가치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론적 비판은, 신고전과 경제학자들이 관찰된 경제행위만을 실증 자료로 인정하고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인간의 자기내성(introspection)을 분석자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간행위의 중요한 정보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의 모든 동기를 어쨌든 단순히 '자기이익의 중심적'이라고 가정해 버림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변동이나 개인의 철학, 가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인간 행태의 변화를 신고전과의 틀 속에서는 분석하지 못한다.

마지막 비판은 신고전과 경제학은 수학적 정밀성과 엄격한 논리 자체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가치개입을 실증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것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현실세계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수학적 모델의 엄격한 해석은 수학에 포장된 말장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론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적 적의성(relevance)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Dual Critique라고 불리는 신고전과 경제학에 대한 윤리적, 방법론적 비판을 볼 때,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는 경제학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 특히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전적(a priori) 방법'을 추구해 온 과학철학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판명되고,

과학철학의 강조점이 과학 커뮤니티의 역할을 연구하는 지식사회학(the sociology of knowledge)의 통찰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기독교 경제학 건설에 참여하는 경제학자들의 시도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¹⁾ 즉 학문의 ‘바른 방법’에 대한 과학철학의 의견일치가 없으므로 연구의 어떤 틀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론적 인식은 경제학을 ‘기독교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은 대단히 다양하다. 우선 신고전파 패러다임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살려 나가자는 가장 온건한 제안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III. 신고전파 세계 안에서 기독교 경제학을 하지는 견해

리차드슨은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경제학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도 기독교 정신이 충만한 새로운 경제학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독교 경제학의 구성을 위해서는 그 동안 훈련받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전혀 다른 철학, 신학, 성서학, 역사, 그리고 과학철학의 전문지식을 공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얻는 데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학자의 기회비용은 경제학 연구의 양과 질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전문적인 경제학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의 비교우위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학에 있다. 리차드슨은 미국 기독교 경제학회(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소속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천직(天職)인 경제학은 멀리하면서 기독교 윤리, 역사, 방법론에 너무 관심을 보인 나머지 경제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느 분야에서도 만족스런 전문가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는 팔죽 한 그

1) 앞에 나온 Hay 책의 3장은 과학철학이 경제학 방법론에 주는 함의를 기독교적 조망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룩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에서의 어리석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그도 누군가가 학제적(學齊的, interdisciplinary)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적 조망으로 경제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학위가 수반되는 대학원 수준의 공식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몇 권의 책이나 식사를 들면서 할 수 있는 가벼운 토론으로는 얻을 수 없으므로, 비교우위가 없는 분야를 위해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희생하는 경제학자답지 않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리차드슨의 이러한 주장은 (신고전파) 경제학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혹은 좋은 점도 있다는) 전체에 기초하고 있다. 신앙인으로서의 경제학자가 경제학을 열심히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지기 원칙이 경제학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경제학이 너무 수학적이어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리차드슨은 현대 경제학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 적의성(relevance)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신고전파 경제학의 중요한 정리(theorem)의 하나는 완전경쟁이 인간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파레토(Pareto) 최적²⁾ 기준에 맞게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정리는 수학적 논리로 증명될 수 있으며, 경제정책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리차드슨은 이 정리가 현실적 적의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정리에서 이용된 가정들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즉 그 정리에서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 어느 한 편이 (혹은 둘 다) 독점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필요불가결한 시장이 경제체제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예, 보험시장) 전체 시장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임을

2) 파레토(Pareto) 최적이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게 자원이 배분되어 있을 때 그 자원 배분은 파레토 최적을 만족한다고 한다. 이는 자원의 배분 상태가 효율적인가를 평가하는 한 방법이다.

그 정리는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정리에서, 예를 들자면 실업보험 시장과 같이 경제체제에서 빠진 시장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정책의 근거도 그 정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차드슨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잊고 있었던 '시장'에 대한 전제가 최근에 새로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신고전파 경제학의 좋은 측면이라고 지적한다. 즉 '시장'이란 외부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 제도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사회윤리는 남을 속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며, 법은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법은 또한 사유재산을 정의하고, 계약된 것을 보호하며, 독점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은 시장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기초에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경제학, 법 경제학으로의 관심은 윤리적·법적 규범과 경제적 유인 간의 조화와 갈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대 경제학에서 윤리, 규범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이 '시장'을 받쳐 주는 전제라는 인식의 확산은 기독교적 정신의 역할을 주류 경제학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 주고 있다.

리차드슨은 그러나 현대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똑같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다. 그는 신고전파 파라다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석대상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 강제적 계약(self-enforcing contract),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시장의 기능, 사유재산권의 사회귀속, 유산과 공동재산과 관련된 가족 간 분배문제, 환경과 의료혜택에 관련된 시장실패의 제도적 치유책, 세대 간의 자원배분문제, 경제적 유인과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계,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제도에서 효율과 공평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독교 경제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많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든 봉사심, 헌신감, 이타주의, 사람들 간의 관계성 등과 같이 비물질적 요소가 분석에서 허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리차드슨은 기독교 경제학자가 (신고전파) 경제학을 잘 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 경제학자 집단은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 중의 하나라는 점을 든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메마르고, 시기심이 많고, 경쟁적이고, 사랑이 없으며,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언제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며,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은 대단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자 집단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경제학 분야에서 기독교인인 우리 자신들이 유명해지는 것이다. 경제학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동료 경제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웃음을 사기 쉽다. 나에게 맡겨진 경제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의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리차드슨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인용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와같이 리차드슨은 기독교인이 신고전과 경제학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독교인의 경제학 문화는 세속 학자들의 그것보다 더 ‘멋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멋진 문화’란 기독교 경제학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공동연구 분위기와 관련이 된다. 그는 주님께서 피로써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니 우리도 애정을 가지고 경제학을 할 것이며, 주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였으므로 우리도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경제학을 해야 하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야”(롬 12:10) 할 것이므로 서로 협력하여 경제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창한다.

앞에서는 주류 경제학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살려가자는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그보다는 ‘기독교적’ 경제학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4절에서는 기독교 경제학의 방법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헤이(Donald A. Hay)의 방법론적 모델을 소개한다. 이 헤이의 모델은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경제학이라는 학문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

자들마다 기독교 경제학의 방법론적 견해가 서로 상이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헤이의 모델을 기준삼아, 한 견해가 헤이의 체계에 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서로 상이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IV. 헤이의 기독교 경제학 틀

기본적으로, 헤이는 기독교 경제학이란 기독교 사회윤리를 경제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본다. 헤이의 기독교 경제학을 하는 방법을 도식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T \rightarrow DSP \rightarrow R$$

- ① T(Christian tradition): 기독교 전통,
- ② DSP(derivative social principles): 성경적 사회원칙,
- ③ R(Reality): 현실

T는 기독교 전통(christian tradition)으로서 기독교 경제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헤이는 성경의 권위를 기독교 전통으로 본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해석이 중요하다. 즉 성경을 해석하여 밝혀진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로 보아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경의 해석은 특정한 신학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신학적 틀은 성경에 나타난 개별 내용들을 전체적 맥락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그러한 신학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는 성경의 증거 그 자체가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일관된 계시의 기록이라는 전제에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간의 관

제성을 알 수 있게 된다.

기독교 전통 T로부터 하나님, 인간, 그리고 피조질서들 간의 관계성이 파악되면, 그로부터 DSP(derivative social principles)라 표시된 '성경적 사회원칙'들이 도출되게 된다. 이 사회원칙들은 T에 내포된 윤리원칙들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한 것들이다. 어떤 사회원칙들은 T로부터 명백히 도출될 수 있으나, 어떤 원칙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도출된 사회원칙들은 언제나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T에서 도출되기는 하였지만 그 사회원칙들이 T와 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사회원칙들은 언제나 비판과 수정에 관대해야 한다.

헤이는 T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질서에 관해 성경이 다루고 있는 네 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즉 이는 (1)창조와 그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섭리 및 인간의 청지기직 (2)타락, 심판과 그와 관련된 노아와의 언약 (3)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그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율법의 규정 (4)교회 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위한 윤리가 그것들이다. 이 성경의 주제들로부터 헤이는 여덟 가지의 경제생활에 관련된 사회원칙들을 도출한다. 그 원칙들은 (1)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피조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는 피조 질서를 낭비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 (2) 모든 사람은 자원과 재능의 청지기라는 직분을 수행할 소명을 가진다. (3) 청지기 직분은 자원의 처분을 결정할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각 사람은 자신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 하나님께 회계(會計, accounting)해야 할 의무가 있다. (4)인간은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일은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자신의 일에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6)일은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 재능의 청지기들로서, 그리고 자원의 공동 청지기들로서 협력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7)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식·주라고 하는 인류의 기본적 욕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함께 나눌 권리는 가진다. 이러한 욕구는 일차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8)자원의 청지기라는 개인적 직분은 그 자원들의 모든 생산물을 소비할 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부자는 자신의 일로써,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의무를 가지고 있다.

T에서 DSP가 일단 도출되면, 그 다음 단계는 DSP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개입되는데, 경제 현실의 인식, 윤리적 판단, 그리고 정책처방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측면 중 그 어느 것도 간단하지 않다. 우선 첫 번째 측면인 현실의 인식은 과학철학의 논의에서 시사되고 있듯이 단순히 '실증적'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다. '실증분석' 그 자체가 어떤 문제를 대상으로 삼느냐, 어떤 자료를 써야 하느냐,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떤 이론을 채택해야 하느냐에 관한 선택문제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의 마음에 새겨진 DSP가 경제 현실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DSP는 연구자가 어떤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어떤 경제적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헤이는 경제현실을 분석하는 기독교적 분석틀 - 예를 들어 소득분배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시된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이론, 후기 케인지안(post-Keynesian)의 이론, 그리고 막스(Marx)이론 등과 같은 -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타락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자기 이익추구 행태를 강조하는 신고전파의 '합리적 인간관'은 너무나 편협하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그는, 경제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한 측면과 함께 (훼손되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선한 측면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적용의 두 번째 측면은 인식된 경제현실과 DSP가 얼마나 괴리된 (혹은 가까운)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인간이 타락하였으므로 우리는 현실이 DSP와 괴리되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격차'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DSP는 결코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실상황 뒷면에 숨어 있는 동기들을 살펴서 얼마나 DSP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측면은 정책처방과 관계가 있다. 현실(R)과 사회원칙(DSP) 간에 간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DSP와 가깝게 설

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헤이는 마태복음 19:3~19:9에 나타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정책과 그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혼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창세기 1:27과 2:24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창조질서를 확인시키신다. 남편과 아내는 평생 동안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이상이다. 이러한 이상은 DSP로 표현될 수 있다. 창조질서를 확인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느냐는 즉각적인 반박에 직면하게 된다. 예수님은 이혼은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되었다고 가르치신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이상적 형태를 주셨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마음이 완악해서)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선을 확인하면서도 타락된 세계에서 차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문제에서의 시사점은, DSP에 표현된 경제적 이상을 항상 확인하면서도 타락한 현실세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헤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경제윤리로 구체화시키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기독교 경제학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 헤이의 틀은 성경적 원리에서부터 경제현실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경제학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은 그 틀 속에서 어느 특정 부문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두 절에서는 헤이의 틀 속에서 기독교 경제학의 여러 입장을 정리한다.

V. 세속사회를 위한 성경적 사회원칙의 도출에 반대하는 견해

헤인(Paul Heyne)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세속세계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여 하늘나라에 속한 세계를 구별하여 전자에 적용될 기독교 (경제)윤리의 도출에 반대하고 있다. 즉 앞에서 소개된 헤이의 모델에서,

T에서 DSP로의 연결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헤인이 세속세계의 경제 정책 수립에 지침이 되는 기독교 윤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아무도 기독교 윤리를 설득력 있게 도출하지 못하였다. (2)기독교 윤리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정책의 민주적 토론에 악영향을 준다. (3)기독교 윤리를 도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복음의 힘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첫 번째의 이유에 대한 그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판단에 따르면 성경으로부터 공공정책에 길잡이가 될 만한 원칙들을 도출해 내려는 가장 심각한 시도들조차 ‘유용’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원칙들을 끄집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는 매슨(John Masson)이 미국 복지정책 개혁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경으로부터 끌어낸 기독교적 원칙들을 예로 든다. 매슨의 기독교적 원칙들 중의 하나는 미국의 복지정책은 가족관계를 유지·보호하고 지방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모세의 율법(Torah)이 가족과 지방 커뮤니티를 중시한다는 것을 헤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인은 매슨이 성경으로부터 그 특정한 원칙을 끄집어 낸 것은, 사회 복지체계가 효과적이 되려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지방 커뮤니티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원칙은 세속적 사상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며, 사실 세속적으로 그 원칙이 당시 그렇게 강력하게 제안되지 않았었다면 매슨은 성경으로부터 그 원칙을 끄집어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헤인은 성경자료는 너무나 광대하여 특정 원칙을 추출해 내는 데는 연구자가 사전에 품고 있는 전제나 선입견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나 선입견, 경험 등이 공공정책에 적용할 기독교적 통찰을 찾으려는 어떤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인은 성경이나 기독교적 자료로부터 경제정책을 위한 ‘명백한’ 지침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제 기독교 윤리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헤인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 그는 경제정책을 논의할 때 ‘명시적으로’ 종교적 판단을 개입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다. 다윈주의 사회에서는 토론에 의해 정

부정책이 판단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종교적 판단에 의해 특정 원칙이 강요된다면 민주적 절차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토론에서 종교적 색채를 짙게 풍기는 태도는 거부감을 야기시켜 기독교 정신에 의해 제안된 ‘건전한 내용’마저 무시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이유로 특정 정책을 지지 혹은 반대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종교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종교적 이유가 특정 정책의 근거로 제시되는 대부분의 경우, 정책 그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일반 원칙의 갑론을박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음을 헤인은 지적한다. 물론 헤인도 신앙이 묵시적으로는 경제정책의 입안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 경제정책 담당자의 기독교 신앙이 그의 현실인식과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경제이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가 반대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기독교 원칙을 공격 토론의 장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 근거는 세속사회와 구원받은 세계를 완전히 구별하고자 하는 헤인의 신학에서 나온다. 그는 두 왕국 접근(two-kingdom approach)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³⁾ 세속사회의 경제원리와 가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세속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본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제관계에도 실천함으로써 세속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속사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기독교 공동체가 그 증거를 보여 줌으로써이다. 이를 통하여 세속에 속한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세속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면 헤인은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헤인이 채택하고 있는 두 왕국접근법이 기독교 경제학에 시사하는 것은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 두 왕국 접근법(two-kingdom approach)은 조상국, “기독교적 경제윤리와 그 현실적 가능성”, 『통합연구』, Vol 4 no 2(대구: CUP, 1991), pp. 155-180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VI. 기독교 경제학 방법에 대한 기타 견해들

헤이의 기독교 경제학 틀에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것이 도출된 DSP를 현실(R)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적용의 영역에는 또 다른 세 가지의 측면이 있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즉 현실의 인식, 윤리적 판단, 그리고 정책처방이다. 이 중에서 현실의 인식과 정책처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책처방은 현실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독교적 분석이론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리처드슨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반면, 헤이는 인간의 타락한 면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선한 면을 포괄할 수 있는 경제이론의 구성을 제창한다. 이 장에서는 기독교적 분석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노박(Novak)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조금 수정하여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신고전파가 상정하고 있는 경제인의 ‘자기이익 중심적’이라는 개념을 좀더 넓게 해석하자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자기이익’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이해(interest)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이익’은 기독교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커뮤니티에 대한 의무감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노박은 ‘자기이익’ 개념에 대한 프리드만의 해석을 인용한다, “자기이익은 근시안적 이기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관심을 주는 모든 가치, 모든 목표를 가리킨다.” 리처드슨도 신고전파의 ‘효용극대화’는 모든 종류의 동기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신축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신축성을 이용하여 경제행위자의 동기에 관한 가정에 좀더 현실성을 줄 수 있는 소위 ‘새로운 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에 관심을 보인다.

홀트만(Halteman)은 두 왕국접근법을 경제학에 적용하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경제행위에 수준 높은 윤리를 가지

고 있는 데 반해 비기독교인들은 그런 윤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고전과 경제학은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당한 도구가 된다. 반면에 성경에 입각한 경제학은 믿음의 공동체에만 적용될 수 있다. 즉 세속사회는 기존 경제학의 묶으로 남겨 두고, 기독교 경제학자는 세속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Yoder, Gish, Finn, Pemberton 등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두 왕국접근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데 이는 첫째, 기독교인들도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죄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비신앙인들도 종교적, 윤리적 신념체계를 다소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며, 신고전과 경제학은 세속사회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적절치 않다는 점, 셋째 두 왕국 접근법은 기독교인의 세속사회에 대한 역할과 관심을 너무 빨리 포기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혹스버전(Roland Hoksbergen), 니버(Niebuhr), 그리고 노엘(Edd Noell)은 기독교적 경제학에 대하여 가장 급진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의 원칙들에서 출발하여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모더니스트(post-modernist)의 방법론적 명제처럼, 모든 이론에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그 이론 주창자의 종교적 신념이 반영되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학문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독교 경제학자 자신이 스스로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현실의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 이론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그 이론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없다. 경제학자들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신고전과 경제학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경제학자가 마음이 편치 못한 경제학을 계속 끌어안고 있을 이유는 없다.

개혁주의자(Reformist)라 불리는 이 혹스버전 류(類)의 견해는 두 왕국 접근법의 신학과는 대조가 되는 다음과 같은 신학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1)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문화명령’(cultural mandate)⁴⁾은 아직도 유효

4) 사이어(James W. Sire)는 그의 저서 「지성의 제자도」(Discipleship Mind, 정옥배 역,

하다. (2)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주(主)이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일 만큼 세속적인 일들에도 관심을 가진다. (3)하나님은 교회의 매개없이 그의 백성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 (4)기독교인의 임무는 이 세상을 타락 이전에 하 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신학에서 유도되는 기독교 경제학자의 역할은 두 왕국 접근법에 서와는 크게 다르다. 개혁주의자들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이론 을 이끌어 내는 잘못된 세계관을 지적하는 일, 즉 세계관 분석부터 시작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독교경제학자는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조망으로 기존의 경제이론들을 비판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전혀 새로운 경제학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자들의 주장이다. 그 새로운 경제학은 창조시의 경제생활의 성격, 이를 변 질시킨 인간의 타락, 예수님과 교회의 지속적인 구속사업, 그리고 구속사업 이 완성되었을 때의 경제생활상에 대한 예측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나 아가서 기독교 경제학자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인이 세속사회를 직접 변화시키는 '침투자'(infiltrator)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 팀스트라(John Tiemstra)는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팀스트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새로운 경제학의 구성 을 시도한 칼빈대학 교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고 있다;

IVP, 1994)에서 다음과 같이 문화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28절)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다음에 그 분은 아담과 하와와 다른 짐승들에게 음식으로 식물들을 주셨다. 창세기 2장도 이와 유사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15절). 동산을 지키는 것을 신학에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동 산으로부터 도시에 이르는 인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명령이었다. 일단 땅을 충만하 게 하고 동산을 경작하기 시작하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문명이 일어나기 때문이 다. ...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을 때, 문화명령은 완전히 뒤엎어져 버렸다.

경제학자들이 기독교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생각할 때는 보통 경제학보다는 철학과 신학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분야는 경제학자들의 비교우위가 없는 분야이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이 되는 몇몇의 공리에서 출발하여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므로 새로운 경제학을 만드는 데도 이 방법에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경제이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학문의 발전은 오히려 어려운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팀스트라에 의하면 철학적, 신학적 기초에서부터 기독교 경제학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므로, 구체적인 현실로 뛰어 들어 그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부터 해 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된다. 그런데 팀스트라는 현실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신고전파가 아닌 기존의 경제학에서 주목하고 있다.

팀스트라는 기독교 경제학자가 현실을 분석하는 틀로서 후기 케인지안(Post-Keynesian)과 제도주의 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아래에서는 후기 케인지안과 제도주의 경제학을 PKI로 표기하기로 한다). PKI는 앞에서 소개된 dual critique의 공격을 받지 않으므로 기독교 경제학을 위한 적합한 틀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PKI의 틀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석에서 인간의 다양한 동기를 허용한다. 즉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역할이 신고전파 패러다임에서와는 달리 인간행태의 설명변수로 허용된다.

PKI가 기독교 경제학에 적합한 좀더 적극적 이유는 그것이 파레토 최적 개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도입하여 경제에서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냐에 관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PKI는 신고전파 경제학과는 달리 개인의 선호(preferences)가 경제에서 추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PKI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완전고용, 가난한 자의 상태, 경제력의 분산, 자연환경의 보호 등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개인들의 가치관과 신앙이 경제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경제의 구조와 그 성과를 결정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PKI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PKI가 단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다른 학파들과는 달리 PKI이론은 누가, 또 무슨 문제에 이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양상이 대단히 다르게 된다. 많은 제도주의학과 경제학자들은 사회관습과 계층 간 경제력의 역할을 너무나 강조하여 이기적이고 이익 추구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들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Galbraith 같은 제도학과 경제학자들은 완전고용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PKI이론들 중에 어떤 것이 그들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를 고려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팀 스트라에 의하면 PKI를 기독교 경제학을 하는 분석 틀로서 이용하는 데 따르는 장점은 첫째, 신학적 내용이 명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속적 경제학자들이 배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PKI를 이용하는 기독교 경제학자는 기독교적 사회윤리와 인간관을 이론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V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각 견해의 주창자들은 모두 자신의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입장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웨브(Bruce G. Webb)는 각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취하고 있는(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신학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혁주의자와 두 왕국 접근법 옹호자의 대조적 신학이 이를 예시하고 있다. 신학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과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아직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경제학을 하는 ‘통일된’ 방법에 관한 의견일치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게 보인다.

웨브에 의하면 기독교 경제학에서 신학이란 과학철학에서 파라다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파라다임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과학철학의 결론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개인의 신앙과 기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영역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독교 경제학을 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웨브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기독교 경제학을 하면서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비판과 수정에 관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Hay, Donald A., *Economics Today - A Christian Critique*(Grand Rapids, Michigan: Erdmans Publishing Co., 1991).
- Heyne, Paul, "Passing Judgment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1994).
- Richardson, J. David,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 - Economic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1994).
- Richardson, J. David, "Frontiers in Economics and Christian Scholarship", *Christian Scholar's Review*, Vol. 4(1988), pp. 381-400
- Tiemstra, John P.,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 Doing Economics, But Differently",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1994).
- Tiemstra, John P., "Christianity and Economic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Christian Scholar's Review*, Vol. 3(1993), pp. 227-247.
- Webb, Bruce G., "Whose Theology, Which Economic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1994).



■ 한동근 ■

1960년 대구 출생, 영남대에서 경제학 전공,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취득, 국토개발연구원 역임, 미국 Ball State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미국 Prudue대학에서 국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시립인천전문대학 무역학 조교수 역임, 현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